

독서의 계절

The season of reading

글. 임형남 · 본지 편집위원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2017년의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서늘하여 정말 살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쾌적한 가을은 또한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가을에만 책을 읽느냐”고 타박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계절이라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을이 되면 현수막에 큼지막하게 ‘독서의 계절’이라 써서 걸었었고, 책을 읽자는 캠페인을 하며 그에 걸맞게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동네 서점에 가서 평소에 안 읽던 책을 꺼내보기도 했죠. 요즘도 그런 행사가 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을에 책을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들로 산으로 놀러갈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겠다고 마음먹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찌 보면 가장 책을 안 읽을 것 같은 가을이라 굳이 독서의 계절로 정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책을 읽읍시다!

꼭 독서의 계절이라서가 아니라, 요즘 우리네 삶이 너무 팍팍해서입니다. 여유도 없고 성찰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만 합니다. 이럴 때 잠시 주위를 돌아보며 속도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사람은 성찰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인간에 대해, 주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며, 그런 바탕 위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인가?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독서라는 단어는 벽에 걸어놓은 액자 속 그림처럼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은 요즘 눈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나 해당하는 단어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량은 무척 낮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2.1권이었던 연간 성인 독서량이 2008년 11.9권, 2009년 10.9권으로 내려가더니 작년의 통계는 8.7권까지 내려갔더군요. 일 년 평균이 아홉 권 정도면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책을 읽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하며 바가지로 굶던 소설 속 허생 부인의 충고가 먹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 우리에게만 만화경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휴대폰의 보급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숨겨놓은 애인처럼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얼굴을 마주대고 시시덕거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간혹 장거리 출장을 가기위해 기차라도 탈 때 심심파적으로, 혹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 정보를 얻어야 할 때만 책을 꺼내 듭니다. 지금이 책을 읽기 무척 힘든 시대라는 것은 맞습니다. 휴대폰에 밀리고 다양한 매스미디어에 밀리고 책을 손에 잡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건축은 구조물을 다루는 공학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인문학이기도 합니다. 방편과 법규로만 이루어진 건축은 무척 견고해 보이지만 무척 공허합니다. 건축이 힘들고 사회가 무척 복잡한 지금이야말로 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말랑한 소설도 좋고 담론이 유장하게 펼쳐지는 철학서도 좋습니다. 혹은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다 외우기 힘든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이라든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책장을 덮는 쇼펜하우어라도 좋습니다.

심지어 다 읽지 않더라도 잠시 ‘지적 허영’에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책의 내용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런저런 생각을 이어가도 좋습니다. 지식이나 정보 또는 효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찰을 하기 위해 책을 읽읍시다. 사람의 길에 대해, 사람을 담을 건축에 대해 생각하는 가을이면 좋겠습니다.